

보성군장학재단, 역대 최대 규모 장학금 지원했다

올 상반기 장학생 533명에 3억5000만원 지급 학생들 재능·역량 키울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

보성군장학재단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장학생 533명을 선발하고 총 3억5952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올해 상반기 장학사업은 전년 동기(386명·2억7459만원) 대비 장학생 수가 147명(38.1%), 장학금 지급액이 8493만원(30.9%) 증가하며 장학 지원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이번 장학생은 보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대학생 본인은 타지역 주소 인정)을 대상으로 선발했으며, 성적우수, 미래인재, 희망나래(특기자), 보급자리(복지), 한울타리(군정발전), 꿈드림(경검고시), 희망드림(학업장려), 아름드리, 푸른꿈, 새싹키움 등 12개 분야에서 총 533명이 선정됐다.

보성군장학재단은 장학금 지원과 함께 학교별 특성화 교육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학교별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능 키움' 사업으로 6개 중·고등학교에 총 5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전문계고 2개교에는 '꿈 키움' 사업비 각 1000만원을 지원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재능 키움 사업은 예당고등학교 지역사회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인재양성 동아리, 별고고등학교 뮤지컬 창작 활동, 예당중학교 인명국악관련학단, 보성고등학교 학습클리닉 활동 등 학교별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꿈 키움 사업은 다항고등학교 부사관 임관시험 대비 과정, 별고상업고등학교 취업 자격증 취득 과정(헤어·메이크업·제과제빵) 등을 통해 학생



2025년 '재능키움사업'으로 예당고등학교 지역사회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인재양성 동아리가 운영됐다. 사진제공=보성군청

들의 취업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규모를 확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학생 개개인의 재능과 역량을 키울 수 있

는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광남일보 드림리더 아카데미 '112동창회', 첫 문화탐방

11기·12기 원우 30여명 참여 문화 향유·회원간 우정 다져

광남일보 드림리더 아카데미 11·12기 총동창회(회장 임중재) 원우 30여명은 최근 경남 통영일대에서 문화탐방을 실시했다.

광남일보 드림리더 아카데미 11기·12기는 올 1월부터 통합 동창회를 출범하고, 명칭을 광남일보 드림리더 아카데미 '112동창회'로 명하고, 이날 첫 문화탐방을 경남 통영일대에서 개최했다.

이날 오전 상무지구를 출발한 원우들은 남산조각공원에 조성된 디피랑과 골목골목 벽화마을인 동피랑을 걸으면서 친목을 다졌으며, 통영과 미륵도를 연결하기 위해 1931년 결성된 '해저터널'을 걸으면서 우정을 나눴다.

이어 점심식사 후 회전하는 '카페넷'에서 통영 바닷가를 감상했으며, 삼도수군통제영 객사인 '세병관'을 방문해 지방 관



광남일보 드림리더 아카데미 11·12기 총동창회(회장 임중재) 원우 30여 명은 최근 경남 통영일대에서 문화탐방을 실시했다.

아로서의 역사적 위상과 배경을 감상했다. 이후 통영 케이볼카에 탑승 전망대에서 한려수도의 탁 트인 바닷가를 조망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했으며, 통영전통시장을 방문해 일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여행에서 김은정 원우가 현지 여행사 가이드를 초대해 통영에 대한 문화적·예술적 가치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세병관'에서는 현지 문화해설사가 세병관에 대한 역사적 흔적을 설명해 통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

원우들은 통합 이후 처음 가는 문화탐방방에도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다정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번 여행을 계기로 한 가지 추억 더 단단해지는 112모임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임중재 회장은 "11기·12기 원우가 통합한 이후 처음 갖는 여행에 많은 원우들이 동참해 준 것에 대해 감사 드린다"면서 "앞으로 있을 골프 경기모임에도 원우들이 적극 참여해 주고 다가오는 10월 해외여행에도 많이 원우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태형 기자 sty1235@gwangnam.co.kr



국립광주과학관은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아 5일부터 7일까지 과학관 본관 일원에서 환경보호와 자원순환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특별행사를 선보인다. 사진 제공=국립광주과학관

'환경의 날' 친환경 자원순환 실천 문화 확산 광주과학관 5~7일 본관 일원서 특별행사 진행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시대다. 폭염과 집중호우,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환경보호와 자원순환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국립광주과학관이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실천하며 환경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다.

국립광주과학관은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와 함께 5일부터 7일까지 과학관 본관 일원에서 환경의 날 특별행사를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친환경 만들기 체험을 비롯해 재활용 전시 및 연계체험, 공연, 강연, 참여 이벤트 등으로 구성된다.

관람객들은 친환경을 주제로 한 만들기 활동을 통해 환경보호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 지구 모양 배스밤

만들기와 초콜릿바 부채 만들기, 레진아트 키링 만들기 등이 마련돼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한 만들기 체험을 넘어 자원순환의 가치를 직접 느껴볼 수 있는 전시도 준비된다. 폐도서가 예술작품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리사이클링 북아트,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리사이클링 팝아트(PapArt) 체험이 열린다.

6일 오후 2시 상상극에서는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수상한 정용환 박사(전 한국원자력연구원 본부장)가 '기후위기 시대, 지구를 구할 에너지는?'을 주제로 강연한다.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7일 오후 3시 정문 앞 필로티에서는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환경보호 실천 인형극'이 펼쳐져 환경 문제에 대한 실천 의지를 키운다.
정태형 기자 view2018@gwangnam.co.kr

동신대, 지역 대학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전남시군마을지원센터협의회 등과 협업 나서

동신대학교 앵커(RISE) 사업단 전남동반성장협업센터(센터장 조지현)가 최근 동신대 혁신융합캠퍼스에서 '앵커 협력 거버넌스 확대 및 공동사업 발굴 워크숍'을 개최하고, 권역별 협약을 체결하며 지역과 대학간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

이번 워크숍은 전남시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컨소시엄 대학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지역 현안을 반영한 공동사업과 협력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동신대, 목포과학대, 전남과학대, 한영대 등 전남동반성장프로젝트 컨소시엄 대학과 전남시군마을지원센터협의회, 전남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지역과 대학간 협력 방향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상생 모델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대호 동신대 앵커사업단장은 "이번 워크숍은 대학과 지역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 수요를 반영한 공동사업과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조현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전남시군마을지원센터협의회와 앵커협력 거버넌스 확대 워크숍. 사진제공=동신대학교

게시판

알림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랑마루협동조합 취약계층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임관유급·장례지도사사무료지원 062-369-4009.
△이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을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임시 상담.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뜸사랑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물레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차매예광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속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ონსე (음력 4월 20일)

- 48년생 만사어려하니 걱정하지 마라
- 60년생 실속을 챙겨야 할 때이다
- 72년생 날로 번창하니 재물·명예가 늘어난다
- 84년생 외형보다는 실속이 중요하다
- 96년생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 51년생 설마가 사람 잡는 법이니 조심하라
- 63년생 재산은 늘어나고 건강은 호전 되었다
- 75년생 기쁨의 자리에 함께 하겠다
- 87년생 반복한다면 손재주를 부를 뿐이다
- 99년생 냉철한 이성으로 임하라
- 54년생 일이 가족으로 인해 쉽게 이뤄진다
- 66년생 기본적인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하라
- 78년생 오늘은 침묵으로 일관하자
- 90년생 부부 갈등이 관재수로 이어 질수 있다
- 57년생 보정으로 사업이 부도 날 수도 있다
- 69년생 연기 쉬운 것은 일기도 쉽다
- 81년생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된다
- 93년생 인연 없는 시기
- 49년생 실수로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자
- 61년생 의처증으로 배우자 불화가 있을 것
- 73년생 치밀하게 준비 안 하면 볼 못 뵈겠다
- 85년생 구관이 명관이다
- 97년생 역경을 피하지 말고 당당히 부딪혀 보라
- 52년생 허황된 일은 삼가야 한다
- 64년생 하자가 보인다
- 76년생 풍성한 소득을 가져오는 성공의 마당
- 88년생 모든 일이 잘 풀리니 크게 성공 할 것
- 55년생 애사처럼 피임을 주의하라
- 67년생 말 다들하지 마라
- 79년생 지인의 방문안 후 상심하게 될 것이다
- 91년생 주머니 윤택한 날
- 58년생 밖으로 나가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 70년생 객관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허사다
- 82년생 평생 보낼 배우자를 따뜻하게 대하라
- 94년생 임으로 기회를 놓친다

강은주 교수의 시주·풍수·직명

- 50년생 검정색 차 교통사고 조심하라
- 62년생 틀린 것이 섞여 있으니 잘 살펴라
- 74년생 답답한 일이 풀려 가정에 기쁨이 있다
- 86년생 무의식중에 착오가 일어날 수도 있다
- 98년생 현 상태에 만족하고 더욱 노력하라
- 53년생 진행한다 해도 차질은 없었다
- 65년생 연인의 도움으로 해결 될 것이다
- 77년생 귀하가 먼저 도와줘야 한다
- 89년생 가는 곳마다 이로운 일이 기다린다
- 56년생 사람 속은 모르는 것이다
- 68년생 뜻하지 않던 아들이 생긴다.
- 80년생 결과는 대동소이 할 것이다
- 92년생 미룰 수 있는 여행이라면 미뤄라
- 59년생 오랜 친구가 나를 떠난다
- 71년생 인식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
- 83년생 일부는 회복이 되겠다
- 95년생 마음을 말로 표현해야 효과를 본다